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교통위원회 윤영희 의원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직접 설명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청계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청계천은 서울의 중요한 상징이자 휴식처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또 사랑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청계천은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반려동물의 출입이 금지된 하천이기도 합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약 90만 가구, 반려동물 수는 114만 7천 마리에 달합니다. 5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셈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반려동물 동행 정책을 통해 서울시를 반려동물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서울 시민들의 삶을 지원하고,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적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계천은 오랜 기간 그 대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에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조항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인 청계천에서 반려동물과 그 가족의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해당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정부에서도 이미 하천법을 개정하여 하천 내 반려동물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이 단순한 개인적인 취향이나 유행을 넘어, 모든 시민의 권리로 인정받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반려동물의 출입을 허용한 만큼,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 변화를 반영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의 요구와 정부의 법적 변화를 반영하여 청계천 금지 행위 중 반려동물 동반 출입 조항을 삭제하고, 시민들이 우려할 수도 있는 펫티켓과 여러 안전 수칙을 담았습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청계천이 시민들과 그들의 소중한 반려동물이 함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청계천이 시민들의 행복과 건강을 증진 시키고, 서울시가 ‘반려동물과의 공존’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